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 배경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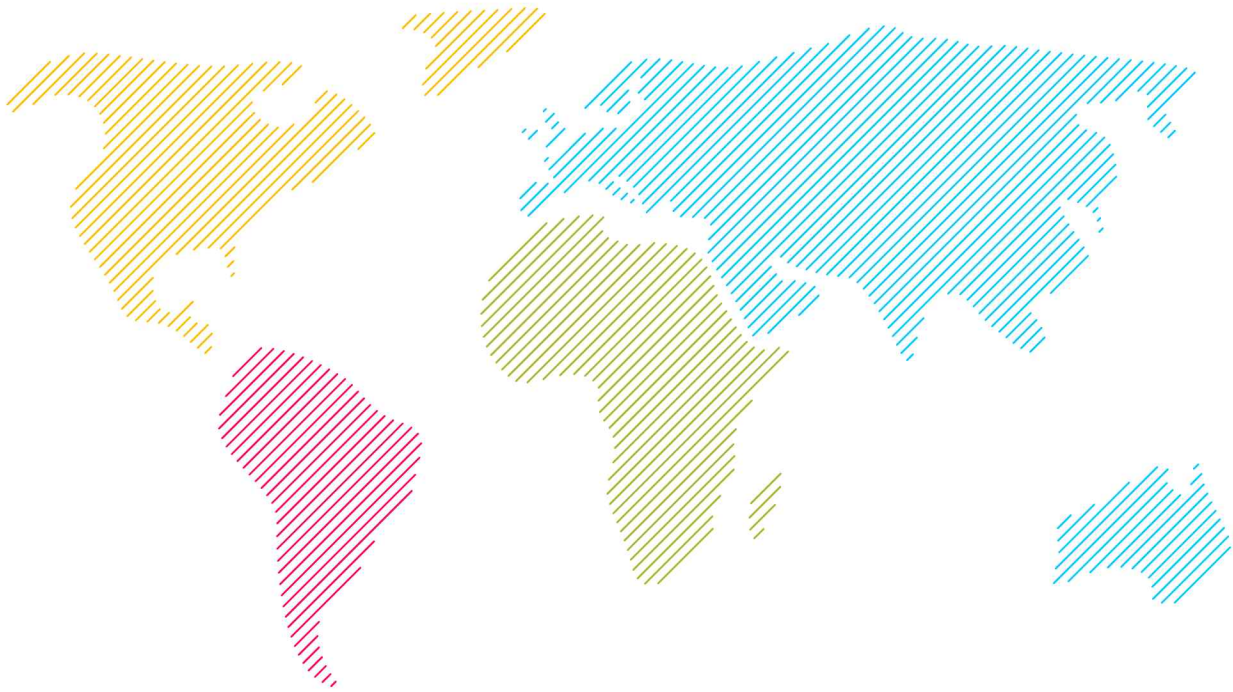
정재완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선임연구원
(jwcheong@kiep.go.kr, Tel: 044-414-1051)

김제국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남방경제실 동서남아대양주팀 연구원
(jegook@kiep.go.kr, Tel: 044-414-1039)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 배경과 전망

요약

- ▶ ASEAN 후발가입국인 베트남이 2000년대 들어 빠른 경제성장과 더불어 폭발적인 수출증가세를 기록, 2017년 ASEAN의 4대 신흥수출대국으로 성장함.
 - 자국 수출만을 고려하면 베트남은 싱가포르를 제치고 3대 수출대국으로 자리매김한바, 본 연구는 베트남의 수출 확대 및 고도화의 구조와 배경을 살펴보고, 전망과 시사점을 제시함.
- ▶ 2000년대 들어 베트남 수출은 국별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품목별로는 전자기기(85류), 섬유(11부), 신발(12부) 등이 주도하는 가운데, 질적 측면과 함께 생산공정별 변화를 가져옴.
 - 베트남 수출은 1차 상품 위주에서 기술집약 제조상품 위주로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고위기술 집약 제조상품은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하여 최대 수출품목이 되었고 2000년 26.4%를 차지하던 연료 1차 상품의 수출비중은 2016년 2%로 비중이 낮아짐. 2000년 최대 비중을 차지하던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은 비중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많이 수출됨.
 - 수정현시비교우위(RSCA) 분석 결과, 베트남 수출품은 23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전자기기, 섬유, 가죽, 목재, 신발 등은 비교우위가 향상됨.
 -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가장 높은 가운데,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간재와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전자기기와 섬유 부문의 다국적 기업과 관련 협력업체의 진출 러시와 관련이 있어 보임.
- ▶ 베트남의 수출 확대 및 고도화의 주요 배경으로는 다음 4가지를 들 수 있음.
 - 도이머이(Doi Moi, 刷新) 이후부터 지속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과 공격적인 다자 및 양자간 FTA 정책
 - 적극적으로 유치해온 FDI가 산업화를 진전시켰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세계적인 전자기기, 섬유 의류, 신발 등의 생산거점으로 변모시키면서 수출을 주도
 - 다른 ASEAN 수출대국의 수출주력상품이 성숙단계에 돌입한 것과는 달리 베트남은 전자기기라는 새로운 수출주력상품 발굴
 - 베트남이 2000년대 중반 이후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에 빠르게 편입하고 있다는 점과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인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경학적 이점
- ▶ 베트남은 당분간 연평균 7%대의 성장을 통해 아시아의 차세대 호랑이(Asia's Next Tiger)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수출 역시 활발한 FDI와 메가 FTA 발효 등을 배경으로 빠르게 증가해 2020년 이전에 ASEAN의 실질적인 최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베트남의 고도 성장 지속 및 수출 확대는 한국에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줌과 동시에 새로운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제기함.
 - 특히 2018년 3월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양국간 협력확대를 위한 비전과 필요조치를 마련한바, 협력 확대와 상생 번영을 위한 세부 방안과 후속조치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차 례

1. 머리말

2. 수출 성장과 구조 변화

- 가. 양적 성장
- 나. 질적 성장
- 다.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변화

3. 수출 고도화 배경

- 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FTA 정책 추진
- 나. FDI의 유입 활발 및 수출 주도
- 다. 새로운 수출견인품목 등장
- 라.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 확대 및 지경학적 요소

4. 전망 및 시사점

- 가. 베트남 경제 및 수출 전망
- 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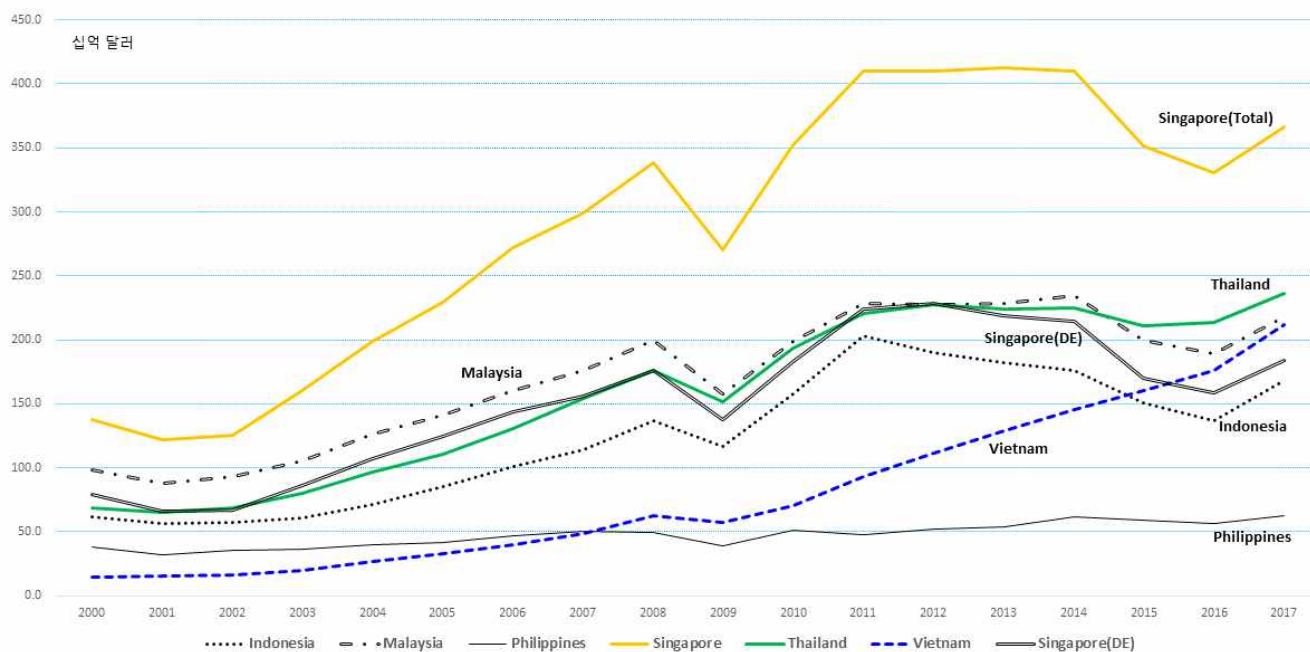
참고문헌

1. 머리말

■ ASEAN 후발가입국 중 하나인 베트남은 2000년대 들어 수출 급증세를 통해 2017년 현재 신흥수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베트남은 조만간 ASEAN의 최대 수출대국 중 하나로 등장할 전망이다.

- 2000년 145억 달러 수준이었던 베트남의 수출은 이후 연평균 17.1%씩 증가했으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2,119억 달러를 기록함.
- 이에 따라 베트남은 ASEAN 회원국 중 2000년 수출 6위에서 2008년 필리핀을 제치고 수출 5위로 도약했으며 2017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ASEAN의 4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함(그림 1 참고).
- 2017년 베트남의 수출은 ASEAN 3대 수출대국인 말레이시아와는 59억 달러, 2대 수출대국인 태국과는 245억 달러 차이에 불과할 정도로 증가함.
- 싱가포르가 세계적인 중계무역항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에 자국 수출만을 대상으로 하면 베트남은 싱가포르도 제쳐 이미 ASEAN 3위 수출대국의 자리에 오름.
- ASEAN 수출 1위 국가인 싱가포르의 2017년 현재 총수출 규모는 3,660억 달러이나 이 중 49.7%가 중계무역을 의미하는 재수출(re-export)임.¹⁾

그림 1. ASEAN 주요국의 수출 추이



주: 싱가포르는 총수출(Total)과 국내수출(DE)로 분리.

자료: IMF DO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1)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2018), p. 50.

- 베트남의 수출증가 추이가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월등하게 빠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이 조만간 ASEAN 내 2위 수출대국, 특히 자국 수출만을 고려하면 ASEAN 최대 수출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본고는 ASEAN의 신흥수출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의 수출 고도화 현황을 확인한 후 그 배경을 진단하고, 베트남의 수출을 전망함과 동시에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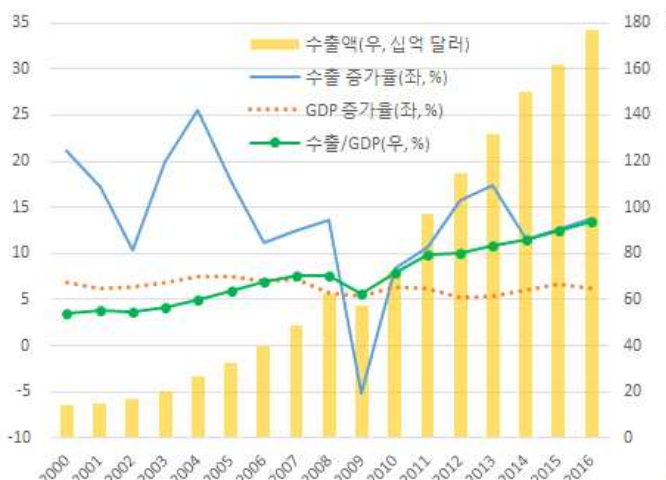
2. 수출 성장과 구조 변화

가. 양적 성장

■ 2000년 이후 베트남의 수출은 거의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제 내 비중이 크게 증가함 (그림 2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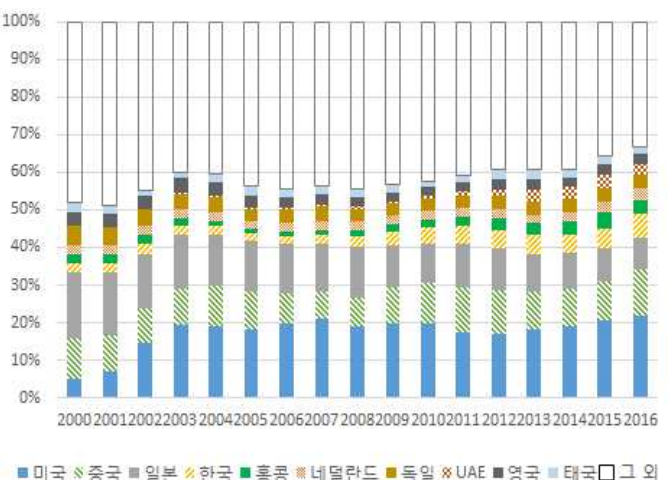
- 베트남의 수출은 2009~10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11년 수출 1,000억 달러를 달성한 데 이어 2017년에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함.
- 2000년 이후 베트남 경제는 활발한 FDI 유입과 수출을 바탕으로 연평균 증가율 6.4%의 꾸준한 성장을 달성했으며, 수출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연평균 증가율 16.9%를 기록하며 확대됨.
- 그 결과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수출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비중은 2000년 53.9%에서 2016년 93.6%로 3.5%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함.

그림 2. 베트남의 수출 및 GDP 추이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World Bank WDI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3. 베트남의 주요 수출국
(단위: %)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의 주요 수출대상국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한국, 홍콩, 네덜란드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한 수출비중은 최근 증가하고 있음(그림 3 참고).

-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양자 무역협정 체결(2000년 7월) 이후 꾸준히 증가, 2002년에는 24억 5,323만 달러로 당시 1위였던 일본(24억 3,696만 달러)을 제쳤으며, 이후 미국은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 지위를 유지함.
- o 베트남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미 수출비중은 2003년 19.6%를 기록한 이후 20%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액은 2007년 100억 달러, 2013년 200억 달러를 초과한데 이어 2015년에는 300억 달러를 넘어섬.
- 2000년 베트남의 2대 수출대상국이었던 일본과 중국은 2002년 미국의 부상 이후 2~3위 수출대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o 베트남의 대중 수출비중은 2000년 이후 등락을 반복하였다가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일 수출비중은 2000년 17.8%에서 2016년 8.3%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함.
- 베트남의 대한국 수출은 2000년 14번째로 높은 수준(3억 5,264만 달러, 비중은 2.4%)이었으나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한국은 2007년 이후 10대 수출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2010년 이후 미, 일, 중의 뒤를 잇는 4대 수출대상국으로 자리매김함.

■ 베트남의 수출 확대는 섬유, 의류, 식물성 생산물 등 기존 주요 제품의 수출 증가와 함께 기계류·전자기기(16부)와 같은 신규 주요 제품의 수출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함(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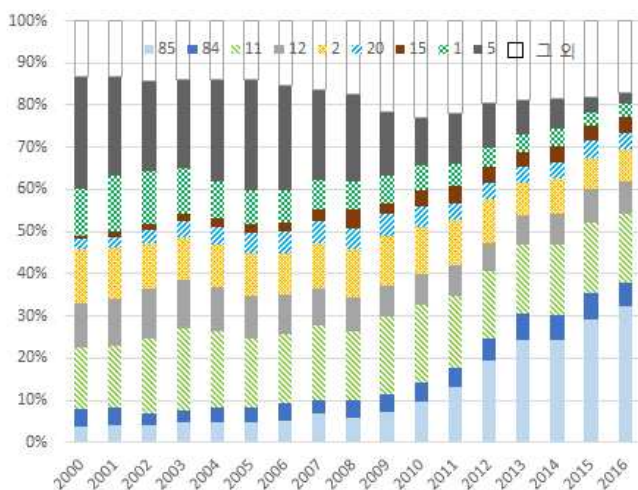
- 베트남의 수출을 23개 품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섬유와 그 제품(11부)의 수출은 2000년 21억 달러에서 2016년 28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함(수출비중 또한 14.5%에서 16.3%로 증가함).²⁾
- 신발·모자 등(12부)와 식물성 생산물(2부)의 수출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함(각각 2000년 10.4%와 13.1%에서 2016년 7.9%와 7.5%).
- 기계류·전자기기(16부)의 수출은 2000년 11억 5,494만 달러로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에 불과했으나 연평균 30% 가까이 증가하면서, 2016년에는 668억 달러(37.9%)로 제1 수출품이 됨.
- o Chapter별로 볼 때, 기계류(84류)의 수출은 2000년 5억 8,284만 달러로 4.0% 비중이었으나 연평균 19%의 증가를 통해 2016년에는 97억 달러로 5.5%의 비중을 차지함.
- 전자기기(85류)의 경우 2000년 수출 5억 7,210만 달러(4.0%)에서 연평균 33.3% 증가하면서, 2016년 수출 571억 달러(32.4%)를 기록함.
- o 이러한 새로운 주요 수출품의 등장은 HS code 6자리 기준(Subheading)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림 5]에서 보듯 2016년 기준 3대 수출품(총수출의 15.4%, 4.1%, 2.9% 비중)인 무선통신망용 전화기(8525.20), 전화기의 부분품(8517.90), 전자집적회로(8542.30)는 2000년에는 0.1% 미만의 비중을 차지하였음.³⁾
- 비(卑)금속과 그 제품(15부) 또한 주요 수출품 중 금액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품목임.

2) HS code 2 digit(Chapter)를 묶은 부(Section)를 기준으로 하되, 품목 및 금액 비중이 높은 16부(기계·전자기기)는 84류(Chapter, 기계와 부분품)와 85류(전자기기)로 나눠서 분석함.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23개 품목' 기준으로 칭함. 해당 분류는 [부표 1]을 참고.

3) 본 보고서는 2000년 이후 베트남의 수출을 분석하기 위해 HS 1996 version을 사용하였기에 일부 품목의 경우 현재의 HS code와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 3대 수출품인 HS 1996 version 기준 8525.20, 8517.90, 8542.30은 HS 2012 version 기준 8517.12(무선통신망용 전화기), 8517.70(전화기의 부분품), 8542.31~.39(기타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 변경됨. 이하의 내용에서도 HS 1996 version으로 표기하되 품명의 경우 code 변동을 반영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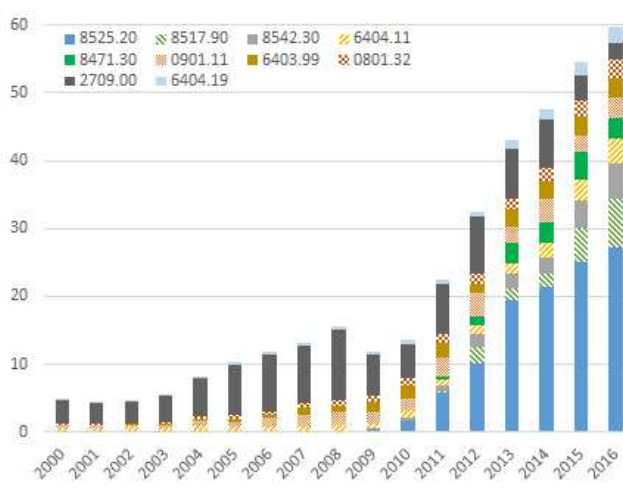
- 다만 살아있는 동물과 그 생산물(1부)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비중은 감소했으며 광물성 생산물(5부)의 수출은 2008년 130억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저유가 등의 영향으로 2016년에는 45억 달러까지 감소함.

그림 4. 베트남의 주요 품목별 수출비중: 23개 품목 (단위: %)



주: 품목별 명칭은 다음과 같음. 16: 기계류·전자기기(84: 기계류, 85: 전자기기), 11: 석유와 그 제품, 12: 신발·모자 등, 2: 식물성 생산물, 20: 잡품, 15: 비(非)금속과 그 제품, 1: 살아있는 동물과 그 생산물, 5: 광물성 생산물.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5. 베트남의 10대 품목(HS6, 2016년 기준) 수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주: HS6별 명칭은 다음과 같음. 8525.20: 무선통신망용 전화기, 8517.90: 전화기의 부분품, 8542.30: 전자집적회로, 6404.11: 스포츠 신발류,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 0901.11: 카페인 커피 원두, 6403.99: 기타 가죽 신발류, 0801.32: 탈각 캐슈넛, 2709.00: 석유와 역청유(원유), 6404.19: 기타 신발류.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질적 성장

■ 베트남의 수출을 UNCTAD 기준의 기술수준별로 살펴본 결과, 수출은 그 규모의 증가뿐 아니라 1차 상품 위주에서 제조업 위주, 특히 기술집약 제조상품(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es) 위주로의 수출 고도화를 이룬 것으로 분석됨(그림 6 참고).⁴⁾

-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high-skill and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es) 수출은 2000년 9억 달러로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labour-intensive and resource-intensive manufactures) 수출(43억 달러)의 1/5 규모에 불과했으나 금액 및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54억 달러, 2016년 643억 달러로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을 제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품으로 도약함.
-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은 연평균 31%의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대부분의 기술수준별 상품 수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2009년에도 여전히 30%가 넘는 증가율을 기록함(그림 7 참고).
- 특히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비중이 2009년 이후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전자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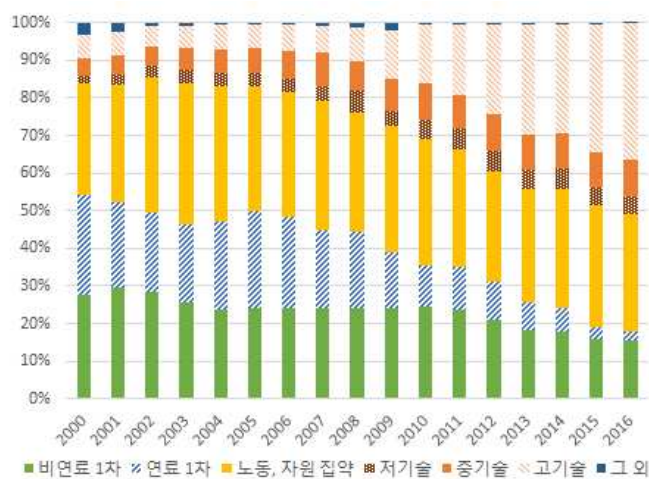
4) 기술수준별 수출상품 분류는 UNCTAD의 Manufactured goods by degree of manufacturing groups를 따름. 자세한 기술수준별 상품 분류는 [부표 2]를 참고.

기업의 베트남 진출 러시와 관련있는 것으로 판단됨.

- 저위기술집약 제조상품(low-skill and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es)과 중위기술집약 제조상품 (medium-skill and technology-intensive manufactures)의 수출 또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00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의 수출비중도 다소 상승하였음.
- o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 저위기술집약 제조상품과 중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증가율은 2000년대 중반 이후 몇 개 연도를 제외하고는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의 수출증가율보다 높았음.
- o 저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증가율은 2008년 102.6%에서 2009년 -42.6%, 2010년 68.7%로 가장 큰 변동폭을 보여 해당 분류의 제품 수출이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것을 알 수 있음.
- o 2000년 가장 큰 수출비중을 차지한 노동·자원집약 제조상품은 2000년대 말까지 20% 전후의 증가율을 유지하며 가장 큰 수출 품목의 위치를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 수출증가율이 낮아져 2016년 수출비중 31.4%로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수출비중을 차지함.
- 제조업 제품의 비중 증가와는 대조적으로 동·식물, 식품·음료 등을 포함하는 비연료 1차 상품과 석유를 포함한 연료 1차 상품의 수출비중은 꾸준히 감소함.
- o 2000년 두 번째로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한 비연료 1차 상품의 수출은 2000년 40억 달러에서 2016년 277억 달러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7%에서 15.7%로 감소함.
- o 기술수준별 수출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연료 1차 상품 수출액은 2008년 126억 달러로 최고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액 감소에 더해 다른 상품의 수출 증가 영향으로 2000년 26.4%에서 2016년 2.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음.

그림 6. 베트남의 기술수준별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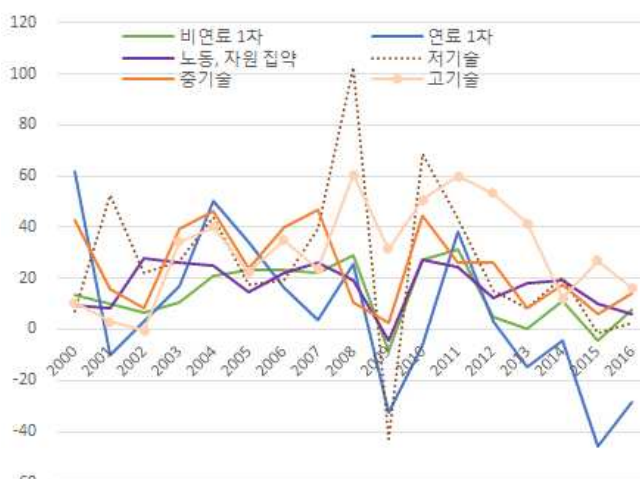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7. 베트남의 기술수준별 수출 성장률

(단위: %)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세부 품목별로 볼 때 2000년 높은 수출비중을 차지하던 원유 및 역청질 광물원유(SITC 333), 신발(SITC 85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자켓(SITC 841)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전화기를 포함한)기타 통신장비(SITC 764),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관(SITC 776) 등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비중이 증가함.

- 고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수출 증가에는 (전화기를 포함한)기타 통신장비(SITC 764)의 수출 증가(수출비중 2000년 0.3% → 2016년 21.9%)가 가장 큰 기여를 함(표 1 참고).
- o 그 외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관(SITC 776), 자동자료처리기계(SITC 752), 기타 사진장치 및 장비(SITC 881)와 같은 주요 품목 또한 수출비중이 2000년 1% 미만에서 2016년 1.2~3.9%로 증가함.
- 저위기술집약 및 중위기술집약 제조상품의 경우 동 기간 대체로 수출비중과 수출액 모두 꾸준히 증가하였음.
- o 저위기술집약 제조상품 중 기타 잡제품(SITC 899), 중위기술집약 제조상품 중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SITC 772)의 경우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비중이 각각 0.3%p와 0.1%p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꾸준히 증가함(각각 연평균 증가율 13.8%, 16.4%).
- 노동집약 제조상품 중 신발과 의류 제품의 수출은 전 기간 꾸준히 증가함.
- o 수출 증가에도 신발(SITC 851),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자켓(SITC 841)의 수출비중은 2000년 10.2%와 5.6%에서 2016년 7.6%와 2.8%로 각각 2.5%p와 2.8%p 감소함.
- 2000년 연료 1차 상품 수출의 91.6%(전체 수출의 24.2%)를 차지하던 원유 및 역청질 광물원유(SITC 333)의 수출 비중은 2016년 72.1%(전체 수출의 1.5%)로 크게 감소함.
- 비연료 1차 상품의 주요 수출품인 농수산물은 기후에 따른 연도별 등락을 보이는데, 과일 및 견과(SITC 057)와 물고기(SITC 034)의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비중은 증가한 반면 커피 및 대용품(SITC 071)의 비중은 감소함.

표 1. 기술수준별 주요 수출품 비중

(단위: %, %p)

	'00	'05	'10	'11	'12	'13	'14	'15	'16	'00→'16
비연료 1차	27.7	23.9	24.3	23.8	21.1	18.4	17.9	15.9	15.7	-12.1
· 과일 및 견과(057)	2.3	1.9	1.8	1.8	1.7	1.5	1.7	2.0	2.6	0.3
· 커피 및 대용품(071)	3.5	2.3	2.6	2.9	3.2	2.2	2.4	1.6	1.9	-1.6
· 물고기(034)	1.2	2.0	2.8	2.7	2.4	1.9	1.8	1.6	1.6	0.4
연료 1차	26.4	25.8	11.0	11.4	9.9	7.3	6.1	3.1	2.0	-24.4
· 원유 및 역청질 광물원유(333)	24.2	22.7	7.0	7.5	7.3	5.6	4.8	2.4	1.5	-22.7
· 석유·역청유(원유 제외) 및 조제품(334)	1.6	1.0	1.8	2.1	1.5	0.9	0.7	0.5	0.4	-1.2
· 기타 석유가스 및 가스성 탄화수소(344)	0.0	0.0	0.0	0.0	0.0	0.0	0.2	0.1	0.1	0.1
노동·자원 집약	29.8	33.4	33.6	31.1	29.5	30.2	31.7	32.3	31.4	1.6
· 신발(851)	10.2	9.5	7.2	6.9	6.6	6.6	7.1	7.7	7.6	-2.5
· 기타 직물제 의복(845)	2.7	2.9	4.4	4.0	3.8	4.0	4.1	4.1	4.1	1.3
· 가구 및 그 부분품(821)	1.6	4.3	4.1	3.2	3.2	3.1	3.1	3.2	3.1	1.5
· 남자 또는 소년용의 코트·자켓(841)	5.6	4.1	3.2	3.3	2.9	2.9	3.1	3.0	2.8	-2.8
· 여자용 코트·자켓·슈트·브레이저(842)	2.8	3.7	3.2	3.0	2.7	2.9	2.9	3.0	2.7	0.0
저위기술	2.0	3.5	5.1	5.5	5.3	5.0	5.3	4.8	4.6	2.6
· 자동차 및 자전거·환자운반구(785)	0.5	0.7	0.4	0.4	0.4	0.5	0.6	0.6	0.6	0.1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674)	0.0	0.2	0.4	0.5	0.4	0.5	0.6	0.5	0.5	0.5
· 기타 잡제품(899)	0.8	0.8	0.8	0.6	0.6	0.6	0.5	0.5	0.5	-0.3
·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793)	0.0	0.1	0.7	0.8	0.9	0.6	0.7	0.6	0.4	0.4
· 기타 비금속제의 제품(699)	0.2	0.3	0.4	0.3	0.3	0.3	0.4	0.4	0.4	0.2

표 1. 계속

	'00	'05	'10	'11	'12	'13	'14	'15	'16	'00→'16
중위기술	4.6	6.5	9.8	9.2	9.8	9.2	9.5	9.4	9.8	5.1
· 기타 배전용 장비(773)	0.9	1.6	1.9	1.6	1.9	1.9	1.8	1.8	1.7	0.9
·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기기(772)	1.1	0.5	0.6	0.5	0.7	0.7	0.7	0.8	1.0	-0.1
· 기타 플라스틱제의 물품(893)	0.5	0.9	1.2	1.1	1.1	1.1	1.1	1.0	1.0	0.5
· 기타 전기기계 및 장치(778)	0.2	0.2	0.7	0.6	0.6	0.6	0.7	0.8	0.8	0.6
· 기타 전력기기 및 부분품(771)	0.3	0.4	0.6	0.5	0.5	0.5	0.5	0.6	0.7	0.4
고위기술	6.2	6.5	15.5	18.5	24.0	29.4	29.0	34.2	36.4	30.3
· (전화기를 포함한)기타 통신장비(764)	0.3	0.4	3.7	7.6	12.4	17.5	17.2	20.4	21.9	21.6
· 열전자관·냉음극관 및 광전자관(776)	0.6	0.7	0.7	0.8	1.9	1.8	1.6	2.9	3.9	3.4
· 자동차료처리기계(752)	0.0	1.3	0.3	0.6	1.4	2.7	2.6	3.0	2.1	2.1
· 사무용기계(751)	0.0	0.0	2.3	1.8	1.9	1.7	1.5	1.4	1.3	1.3
· 기타 사진장치 및 장비(881)	0.1	0.1	0.6	0.6	1.4	1.1	1.2	1.3	1.2	1.1
기타	3.2	0.4	0.6	0.6	0.4	0.5	0.4	0.4	0.1	-3.1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의 수출품목 변화는 제조업 품목의 수출액 증가와 기술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갖춘 질적 성장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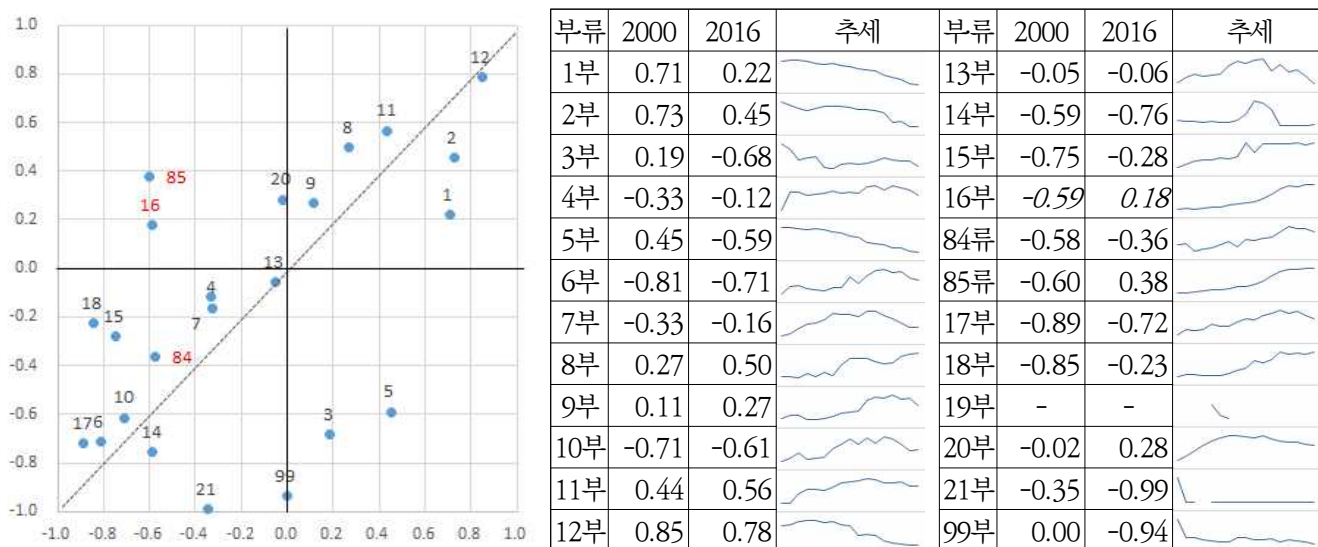
- 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의 대세계 경쟁력을 살펴보기 위해 수정현시비교우위(RSCA: Revealed Symmetric Comparative Advantage)를 분석한 결과,⁵⁾ 주요 23개 품목 중 14개 품목의 수출경쟁력이 2000년에 비해 2016년 개선됨(그림 8에서 45도선 좌상방).
- 2016년 베트남의 수출품 중 RSCA가 0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품목은 총 8개임.
 - 살아있는 동물과 그 생산물(1부), 식물성 생산물(2부), 신발·모자 등(12부)은 2016년 세계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2000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가죽제품(8부), 목재제품(9부), 섬유와 그 제품(11부)은 2000년에 비해 비교우위 정도가 높아짐.
 - 전자기기(85류)와 잡품(20부)은 2000년에는 세계시장에서 비교열위였으나 2016년에는 비교우위의 위치에 올라섬.
- 반면 동·식물성 유지(3부)와 광물성 생산물(5부)의 경우 2000년 수출우위에서 2016년 수출열위로 경쟁력이 감소함.

5) RSCA는 Balassa(1965)의 RCA(현시비교우위지수)의 비대칭성을 보완한 지수로 0보다 클 경우 대상 시장에서 수출품이 비교우위에, 0보다 작을 경우 비교열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음.

$$RCA_{ijk} = \frac{X_{ijk}/X_k}{X_jk/X_k}, \text{ 여기서 } X \text{는 수출액, } i \text{는 상품, } j \text{는 수출국가, } k \text{는 대상 시장을 뜻함.}$$

$$RSCA_{ijk} = \frac{RCA_{ijk} - 1}{RCA_{ijk} + 1}, RSCA \in [-1, 1]$$

그림 8. 베트남 23개 품목의 수출경쟁력 변화(2000(수평축)~2016(수직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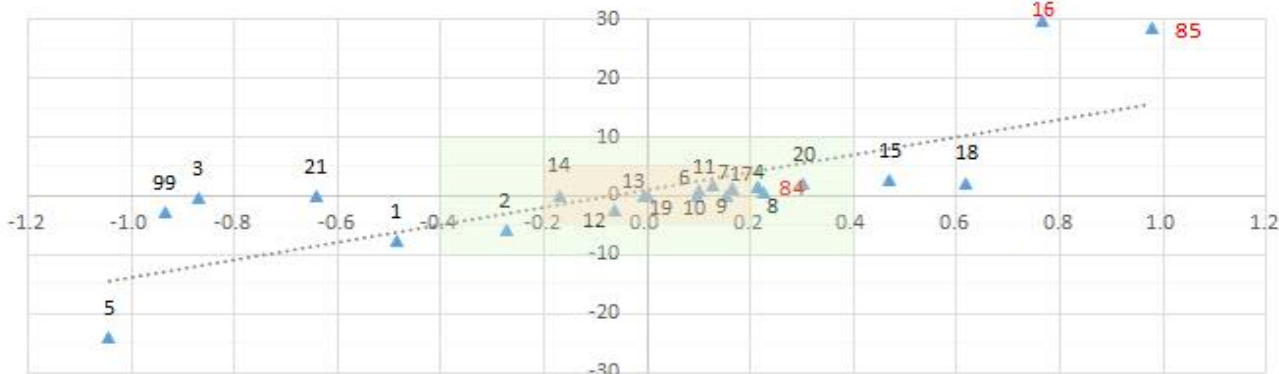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의 수출은 수출경쟁력과 함께 수출비중 또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그림 9]는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경쟁력의 변화분을 수평축에, 동 기간 수출비중 변화분을 수직축에 그린 것으로, 1사분면에는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수출비중이 증가한 품목이, 3사분면에는 동 기간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수출비중이 감소한 품목이 위치함.⁶⁾
- 전자기기(85류), 광학·정밀·의료기기(18부)를 포함한 총 12개 품목이 1사분면에 위치해 2000년에 비해 2016년 수출경쟁력이 개선되고 수출비중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o 전자기기(85류)의 경우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경쟁력과 수출비중이 23개 품목 중 가장 크게 증가함.
- 반면 광물성 연료(5부)의 경우 동 기간 수출경쟁력과 수출비중이 23개 품목 중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이를 포함한 총 8개의 품목이 3사분면에 위치해 2000년 대비 2016년 수출경쟁력이 악화되고 수출비중이 감소함.
- 단, 화학제품(6부), 플라스틱·고무(7부), 섬유와 그 제품(11부), 신발·모자 등(12부) 등 전체 23개 품목 중 10개 품목이 수출경쟁력 변화가 0.2 이하이고 수출비중 변화가 10%p 이하로(그림 9의 붉은 영역)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임.
 - o 반면 수출경쟁력 변화가 0.2~0.4, 수출비중 변화가 5~10%p인 품목(그림 9의 녹색 영역)은 5개, 그 이상의 변화를 보여준 품목은 8개임.

6) 물론 수출경쟁력을 판단하는 RCA 의 $\frac{X_{ijk}/X_{ik}}{X_{jk}/X_k}$ 는 곧 $\frac{X_{ijk}}{X_{jk}} \frac{X_k}{X_{ik}}$ 로 나타낼 수 있으며 변환한 식의 첫 항은 j 국의 k 시장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i 상품의 비중을 나타내, 수출비중 증가 시 RCA 즉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음. 다만 두 번째 항은 k 시장 총수출에서 i 상품의 비중의 역수로, 첫 항이 불변일 경우에도 k 시장에서 i 상품의 비중이 감소하면 RCA 가 증가함. 따라서 j 국의 총수출 중 i 상품 수출비중(첫 항) 증가속도가 k 시장 내 총수출 중 i 상품 수출비중(두 번째 항의 역수) 증가속도보다 느리면 j 국 i 상품 수출비중 증가에도 RCA 는 감소함.

그림 9. 베트남의 수출경쟁력(수평축) 및 수출비중(수직축) 변화(2000~16년)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생산공정별 수출구조 변화

■ 베트남의 수출은 질적 성장과 함께 원료와 소비재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과 같은 중간재, 최종재 중 자본재의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구조적 변화가 발생함(그림 10 참고).

- 베트남의 생산공정별 수출품⁷⁾ 중 원료제품의 비중은 2000년 32.4%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6년에는 5.1%에 이를 정도로 크게 감소함.
- 최종재 중 소비재의 경우도 2000년 51.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2002년 58.0%를 기점으로 감소하여 2016년 총수출에서는 41.4%로 비중이 다소 낮아짐.
 - 다만 2009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소비재의 수출비중이 2012년 이후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은 것은 섬유·의류와 신발 등의 수출비중이 유지된 결과로 판단됨.
- 반면 중간재인 반제품,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 중 자본재의 수출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 2000년 총수출 중 7.5%를 차지한 반제품의 수출비중은 2012년에는 16.6%까지 증가한 후 최근 감소하였으나 2016년 총 수출의 15.0% 비중으로 2000년 대비 약 2배 증가함.
 - 부품 및 부분품, 자본재의 수출비중은 동 기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0년 각각 6.2%와 2.3%에서 2016년 14.3%와 24.3%를 차지함.

■ 원료 수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연료 및 윤활유의 수출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으며 산업용 식음료와 산업용 원자재의 수출액은 증가한 반면 수출비중은 감소하였음(그림 11 참고).

- 연료 및 윤활유 수출은 2000년 36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26.2%, 원료 수출의 80.7%를 차지했으나 2008년 117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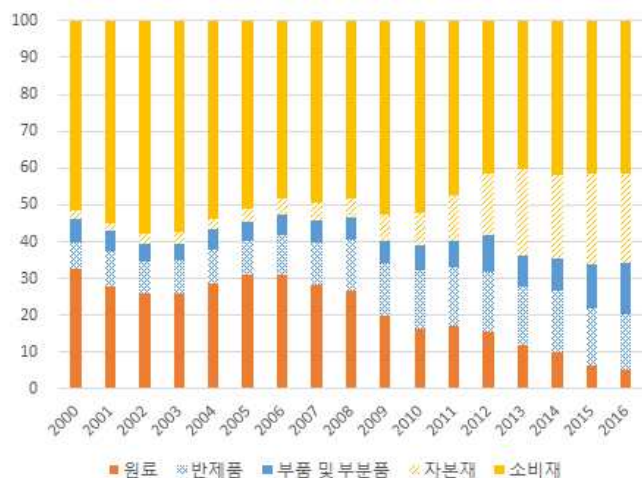
7) UNCTAD의 BEC(broad economic category)는 국민계정체계(SNA)의 용도에 따라 교역품을 원료 혹은 소재(primary goods), 중간재(intermediate goods), 최종재(final goods)로 분류하고 있고, 중간재는 다시 반제품(semi-finished goods)과 부품 및 부분품(parts & components)으로 나누고 최종재는 다시 자본재(capital goods)와 소비재(consumption goods)로 나누고 있음(Gaulier, Françoise, and Deniz 2004, p. 51). 생산공정별 품목 분류는 부표 3을 참고.

달러로 최고점을 기록한 후 2016년까지 수출액과 비중이 감소함.

- 이는 연료 및 운할유 중 가장 큰 비중(2016년 기준 95.7%)을 차지하는 석유와 역청유(원유, HS 2709.00)의 수출 감소에 따른 것으로, 직접적으로는 베트남이 중팻(Dung Quat) 정유공장 설립 이후 원유 수출을 축소된 것과 관련됨.
- 그 외 원료품목인 산업용 식음료와 산업용 원자재의 경우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2000년 각각 5억 6,182만 달러와 3억 175만 달러에서 2016년 33억 달러와 29억 달러로 증가함.
- 산업용 식음료 중 카페인 커피 원두(HS 0901.11) 수출은 2000년 5억 달러에서 2016년 29억 6,712만 달러로 약 6배 증가해 2016년에는 산업용 식음료 수출 중 81.1%의 비중을 차지함.
- 산업용 원자재의 2016년 수출 중 가장 큰 비중(35.1%)을 차지하는 활엽수류의 칩·삭편(HS 4401.22)은 2008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음으로 큰 비중(24.7%)인 공업 규격 천연고무(HS 4001.22)의 수출은 2012~13년 20억 달러를 넘는 이후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2016년 6억 6,045만 달러).

그림 10. 베트남의 생산공정별 수출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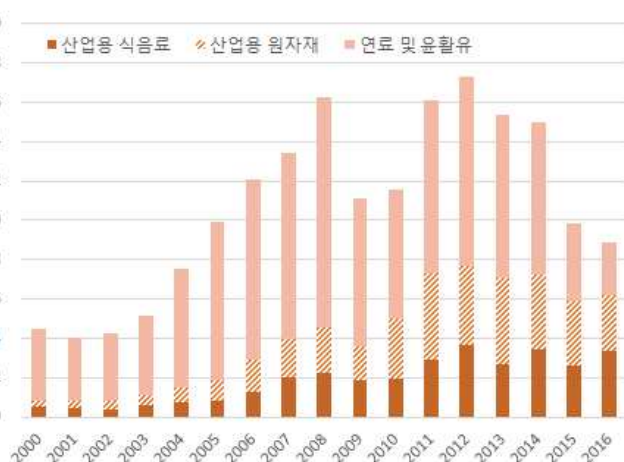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1. 베트남의 원료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반제품 중 카메라용 부품품과 부속품, 부품 및 부분품 중 전화기 부품품 등의 수출이 늘어남에 따라 베트남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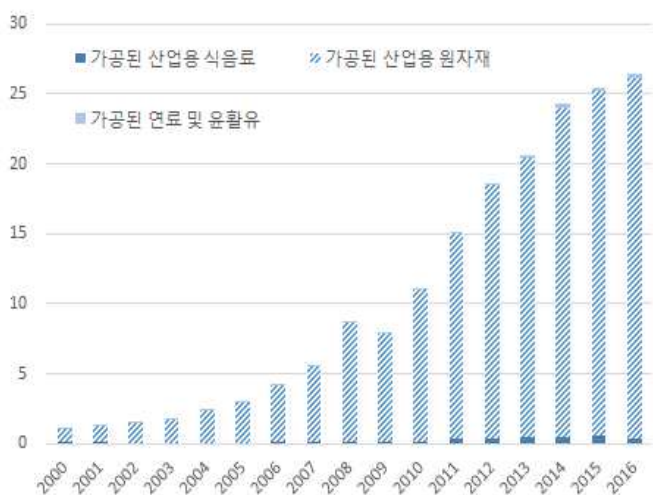
- 2000년 반제품 수출의 89.2%(9억 달러)를 차지하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는 2016년 257억 달러로 반제품 수출의 97.5%, 전체 수출의 14.7%를 차지, 수출 규모와 비중이 크게 증가함(그림 12 참고).
- 베트남의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중에는 카메라용 전구의 부품품과 부속품(HS 9006.91), 운송장비용 와이어링 세트(HS 8544.30), 232.56~714.29 데시텍스의 면사(HS 5205.12) 등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수출 중 4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천연고무 등과 합성고무 등의 혼합물(HS 4002.80)의 경우 2015년 이후 수출이 급증함(2014년 223만 달러 → 2015년 2억 달러 → 2016년 7억 5,066만 달러).
- [그림 13]의 부품 및 부분품 수출의 경우 2000년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및 부분품 비중이 92.4%를 차지했으나 2010년 53.7%까지 하락한 이후 최근 비중이 다소 증가함(2016년 78.1%).
- 전화기의 부품품(HS 8517.90)과 전자집적회로(HS 8542.30)의 수출액은 2011년까지 각각 10억 달러 미만이었으나

2012년 23억 달러와 19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2016년에는 72억 달러와 52억 달러로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및 부분품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함.

- 운송장비의 부품 및 부분품은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HS 8507.20), 신제품인 승용차용 공기타이어(HS 4011.10), 그 밖의 축전지(HS 8507.80) 등의 수출 확대에 따라 수출비중이 증가함.

그림 12. 베트남의 반제품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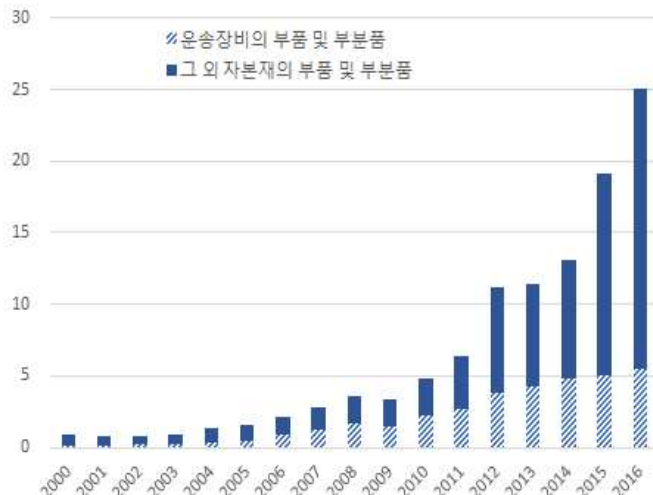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3. 베트남의 부품 및 부분품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최종재의 경우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 자본재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의류, 신발 등을 포함하는 반내구성 소비재의 수출비중은 20%대를 유지함.

- 자본재 수출의 대부분은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수출로, 2000년 이후 전 기간 자본재 수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2.3%에서 2016년 23.9%로 증가함(그림 14 참고).
 - 자본재 수출 증가는 주로 무선통신망용 전화기(HS 8525.20)의 수출 증가에 따른 것으로, 수출 규모는 2000년 63만 달러 수준에서 2009년 2억 달러를 초과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6년 272억 달러를 기록함.
 - 반면 2000년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수출 중 가장 큰 비중(21.9%, 4,481만 달러)을 차지하던 출력 37.5와트 이하의 전동기(HS 8501.10)는 2016년 6억 달러를 수출했으나 비중은 1.4%로 감소함.
 - 산업용 운송장비의 수출은 2000년 415만 달러에서 2016년 5억 7,399만 달러로 증가했으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 기간 1% 미만을 차지함.
- [그림 15]에서 확인할 수 있듯 소비재 수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내구성 소비재는 2000년 이후 전체 수출의 20%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가정용 식음료 제품과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2000년 13.6%와 8.1%에서 2016년 5.3%와 5.0%).
 - 반내구성 소비재의 수출은 HS 6404.11, 6403.99, 6404.19, 6402.99 등 신발류(64류)와 의류(61류, 62류)의 비중이 전 기간 80%(2016년은 79.9%)를 넘음.
 - 주요 가정용 식음료 제품인 탈각 캐슈넛(HS 0801.32), 기타 식용 과일(HS 0810.90), 분쇄하지 않은 후추(HS 0904.11)

의 수출 규모와 비중은 증가했으나 가정용 식음료 중 2대 수출품인 냉동 새우류(HS 0306.13)의 경우 2014년 2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한 이후 최근 수출이 감소함.

-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수출 중 가장 높은 비중(22.7%)을 차지하는 도정한 쌀(HS 1006.30)은 2011년 이후 수출이 감소한 반면 냉동 어류 필렛(HS 0304.20)과 가공 새우류(HS 1605.20)의 수출액 및 비중은 꾸준히 증가함.

그림 14. 베트남의 자본재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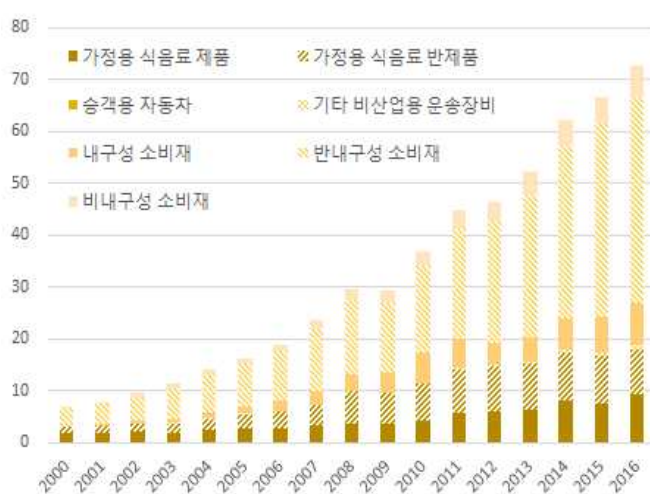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5. 베트남의 소비자재 수출액

(단위: 십억 달러)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수출 고도화 배경

가. 정부의 적극적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 및 FTA 정책

■ 베트남은 수출산업 육성을 도이머이(Doi Moi, 刷新)의 기본으로 채택하면서 아시아 선발개도국(ANIEs)의 발전경로인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추구함.

- 사회주의 공업화노선과는 달리 개혁개방 초기부터 노동집약제품의 수출 확대, 수출품의 개발과 품질 향상, 수출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였고 세계최대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 확대를 위해 양국간 국교정상화(1995년)와 교역관계 정상화(NTR, 2001)도 추진함.
- 그 결과 베트남의 수출은 도이머이를 도입한 1986년 7.9억 달러에서 2017년 2,119억 달러로 260배 이상 확대됨 (IMF DOTS).

■ 대외지향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베트남은 세계경제체제로의 편입을 본격화하고 다자 및 양자간 FTA도 적극적으로 추진함.

- 먼저 베트남은 미국과의 국교정상화 이후 ASEAN 가입(1995년), APEC 가입(1998년), WTO 가입(2007년) 등을 통해 세계경제체제로 본격 편입하기 시작함.
- 아울러 베트남은 2000년대 들어 적극적인 통상정책을 통해 다양한 지역 및 국가와 FTA를 체결하였는데, 현재 발효 중인 대표적인 FTA로는 ATIGA(ASEAN Trade in Goods Agreement), ASEAN+1(한국, 중국, 일본, 인도, 호주·뉴질랜드) FTAs, 한-베트남 FTA, 일-베트남 FTA, 베트남-칠레 FTA, 베트남-EEU FTA 등이 있음(표 2 참고).
- 베트남은 EU 및 홍콩과의 FTA와 최근 타결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도 발효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도 참가함.

표 2. ASEAN과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2018년 5월)

	발효(발효시기)	서명/타결	협상 중
ASEAN	- (AFTA ⇒) ATIGA(2010. 5) - 한국(2007. 6), 중국(2005. 7), 일본(2008. 12), 인도(2010. 1), 호주·뉴질랜드(2010. 1)	EU(2009년 중단)	RCEP
베트남	- 한국(2015. 12), 일본(2009. 10), 칠레(2014. 1), EEU(2016. 10) - 홍콩(2019. 1 예정)	- EU(2015. 12) - CPTPP(2018. 3, TPP는 미국 탈퇴로 불발)	이스라엘, EFTA

주: 1) 유라시아경제동맹(EEU) 회원국: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러시아.

2)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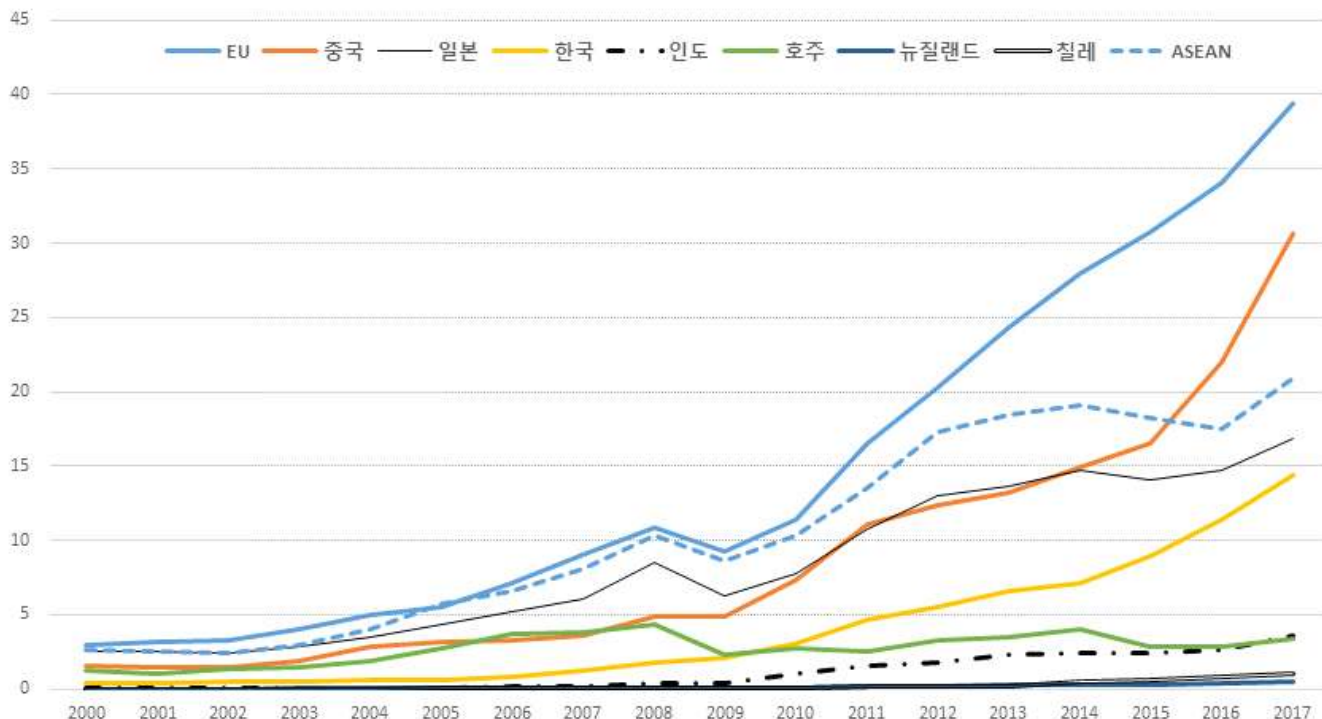
- 베트남의 FTA 체결지역 및 국가(발효 예정 포함)에 대한 수출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부터 대부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그림 16 참고).
- 2016년 기준 베트남의 수출 FTA 커버율(수출에서 차지하는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의 비율)은 40.7%에 불과해 싱가포르(73.7%), 말레이시아(62.3%), 태국(56.2%), 인도네시아(60.0%) 등보다 많이 낮으나,⁸⁾ 현재 발효가 예정된 국가들을 모두 합할 경우 베트남의 수출 FTA 커버율은 69%대로 높아짐(2017년 기준).
- 베트남의 수출 FTA 커버율이 낮은 이유는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수출대상국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임.⁹⁾

8) 日本貿易振興機構(2017) 참고.

9) 베트남은 최대 수출대상국인 미국이 참가한 TPP에도 참가하였으나, 발효를 앞둔 TPP가 미국의 탈퇴로 무산된 바 있음.

그림 16. 베트남의 주요 FTA 체결국 및 지역(발효 예정 포함)에 대한 수출 추이

(단위: 십억 달러)



자료: IMF DOTS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FDI의 유입 활발 및 수출 주도

■ 베트남은 ASEAN 선발개도국의 발전경로, 즉 외자활용형 성장전략을 이어받아 외국인직접투자(FDI)를 개혁·개방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유치하였고, 베트남에 대한 FDI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붐을 이룰 정도로 활발함.

- 베트남은 풍부한 성장잠재력(자연자원, 노동력, 내수시장 등), 정치·사회적 안정, 인프라 개선, 동아시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ASEAN경제공동체(AEC) 효과 향유 등을 배경으로 FDI를 활발히 유치함.
- 특히 미국과의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2006년) 수립과 WTO 가입 직전부터 베트남에 대한 FDI(허가 기준)가 철강, 석유화학, 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급증하였으며, 이러한 투자는 최대 투자국 한국을 포함한 2위 투자국 일본, 3위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도함.
-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는 베트남에 대한 총투자(누적 기준)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국가로는 한국(전체의 18.1%), 일본(15.4%), 싱가포르(13.3%), 대만(9.7%), 홍콩(5.6%), 말레이시아(3.8%), 태국(2.9%) 등이 있음.¹⁰⁾

10) 베트남 외국인투자청(검색일: 2018. 5. 22).

그림 17. 베트남의 FDI 유치(허가 기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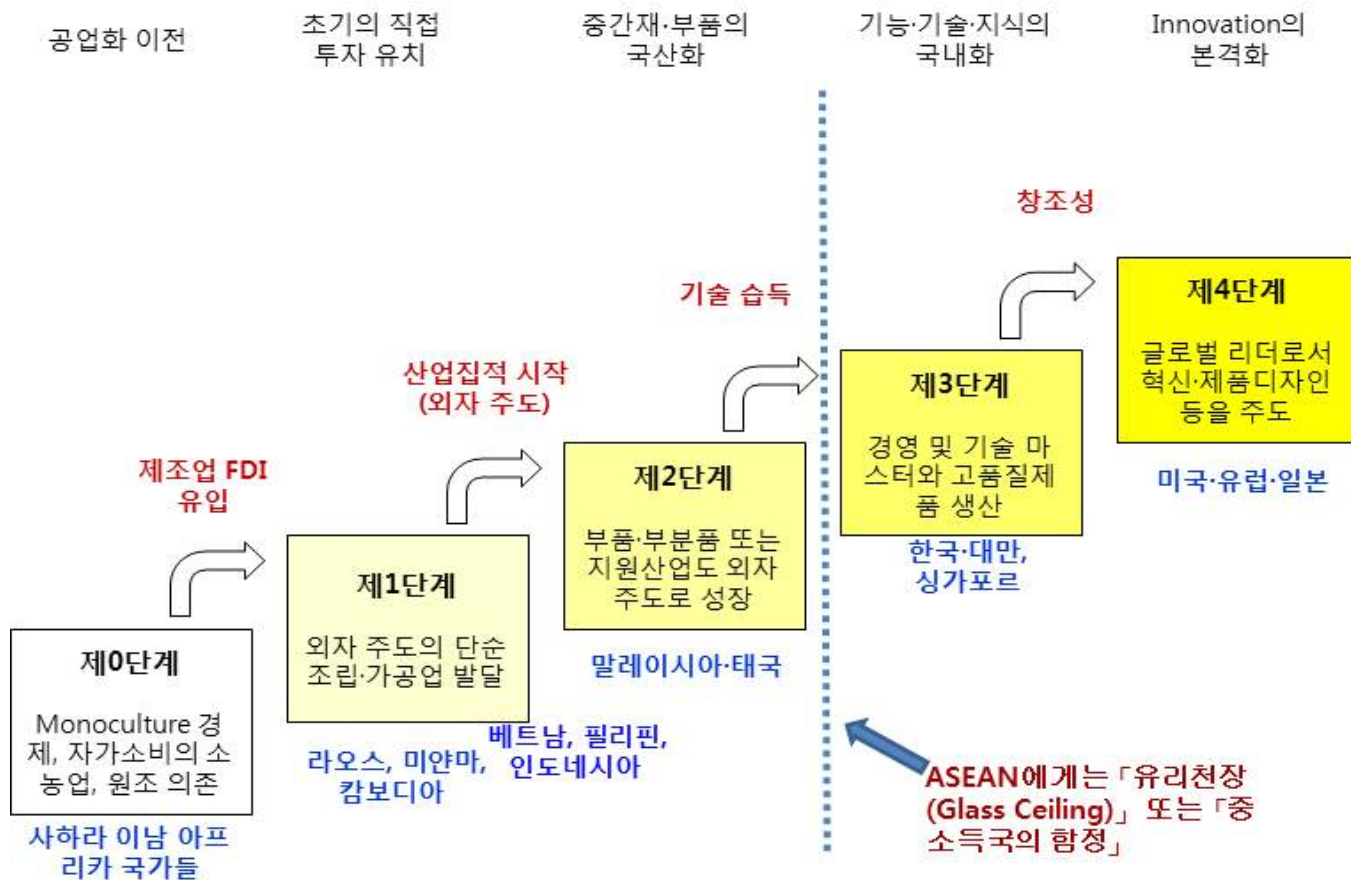


주: 2000~05년은 신규와 재투자를 합한 수치임.
자료: 베트남 통계청 및 외국인투자청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

■ 베트남은 도이머이 이후 30여 년 동안 적극적으로 FDI를 유치해 산업화를 추구한 결과, 초기 외자 주도의 단순조립가 공업 발달 단계를 뛰어넘어 부품 및 부품품과 지원산업(supporting industry)을 육성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으며, 외자가 여전히 이를 주도함.

- Ohno(2010)는 개도국의 산업발전, 특히 산업화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FDI의 역할을 설명함(그림 18 참고).
 - 공업화 이전인 모노컬처경제(Monoculture Economy)를 벗어난 개도국의 발전단계는 FDI 유치를 통해 의류와 신발 제조, 혹은 가전 등의 조립과 같은 단순제품을 생산하고 원재료와 부품은 수입에 의존하는 제1단계, 전(前) 단계 생산 제품의 최종 소비자 시장이 확대되면서 중간재·부품의 생산도 유발하지만 여전히 FDI에 대해 의존적인 제2단계, 현지 기업이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고 제품의 고품질화를 도모하는 제3단계, 제품혁신을 통해 신상품을 개발하는 선진국 수준인 제4단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그림 18. 개도국의 산업화 추격(catch-up) 단계



자료: Ohno(2010), p. 6을 토대로 저자 재구성.

- 베트남은 활발한 FDI를 배경으로 2010년대 들어 전자기기산업, 섬유·의류산업 등에서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부상하였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계금속, 화학, 전자정보기술, 건설자재, 전력, 자동차 등과 부품 및 부분품 중심의 지원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음.

■ 베트남에 유입된 FDI는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 전체에 대한 기여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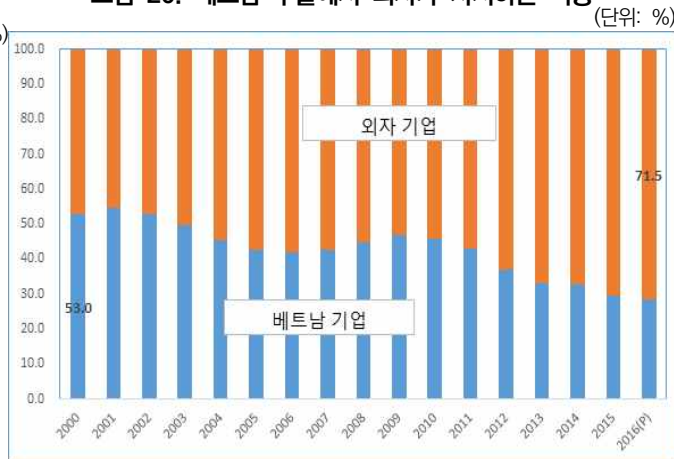
- FDI는 베트남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낮아지던 총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2년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그림 19 참고).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총수출에서 FDI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47%에서 2016년 71.5%로 지속적으로 높아짐(그림 20 참고).

그림 19. 베트남의 GDP 및 총투자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베트남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0. 베트남 수출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



주: 2016년은 추정치.

자료: 베트남 통계청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에 대한 FDI는 다른 ASEAN 국가에 비해 제조업 분야에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트남의 수출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o 2012~16년 동안 ASEAN 국가에 투자된 FDI(BOP 기준)를 비교해보면, 베트남은 제조업 분야가 70% 가까이 차지하는데 비해 인도네시아는 46%, 태국은 37%, 말레이시아는 32%에 그친 것을 알 수 있음(표 3 참고).
- o 특히 활발한 FDI를 통해 세계적인 생산거점으로 부상한 전자기기, 섬유·의류, 신발 부문이 2016년 현재 베트남 총수출의 60% 가까이 차지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음(그림 4 참고).

표 3. ASEAN 주요국의 제조업 분야에 대한 FDI 유치 비중 비교(2012~16년 투자)

(기준: BOP, 단위: 백만 달러,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태국	베트남	합계
제조업	129	2,367	36,499	201	16,949	1,333	2,383	16,071	35,304	111,236
제조업 비중	5.92	27.72	46.38	5.30	31.65	12.42	9.15	37.26	69.40	40.08
전체	2,179	8,539	78,693	3,789	53,553	10,735	26,044	43,136	50,868	277,536

주: FDI가 금융을 비롯한 서비스 분야에 특화된 싱가포르를 제외.

자료: ASEAN Secretariat and Australian Aid(2017), p.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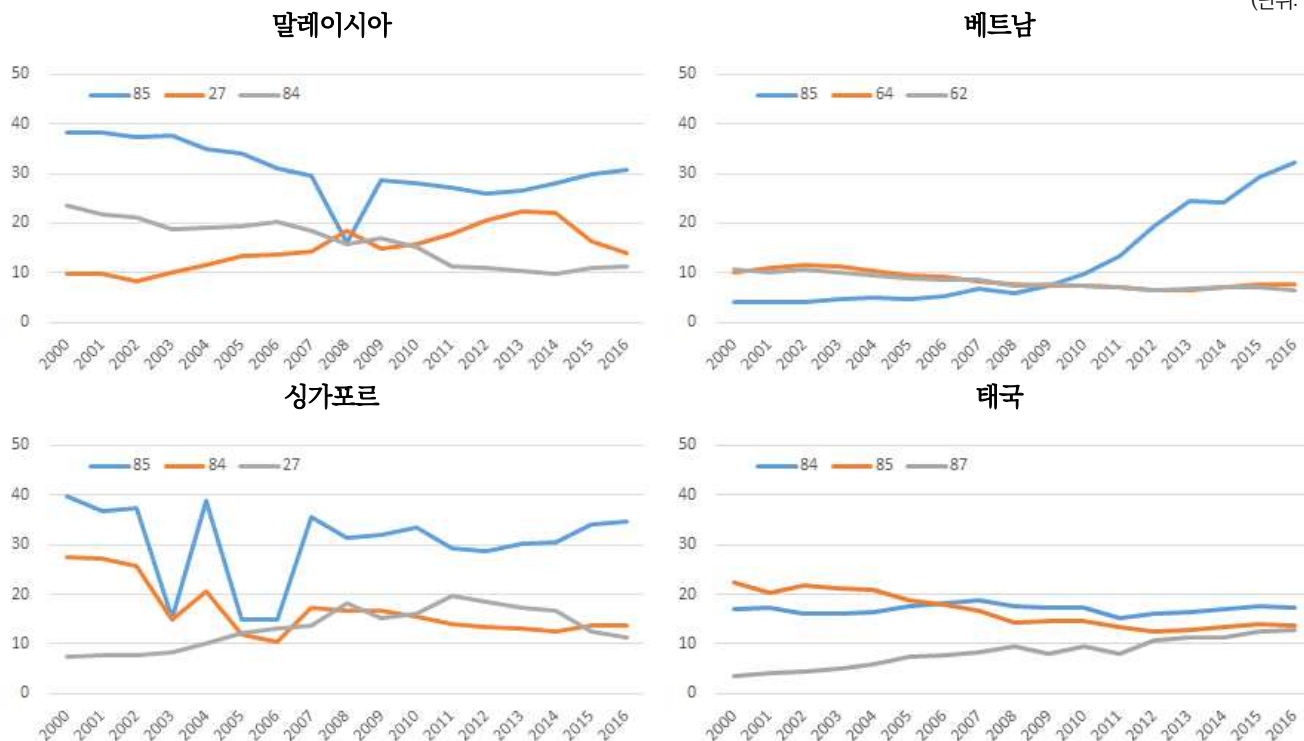
다. 새로운 수출견인품목 등장

■ 베트남의 경우 2000년 전체의 4%에 불과하던 HS 85류(전자기기)가 2009년 이후 새로운 수출주력상품으로 등장해 2016년 총수출의 32.4%를 차지하면서 수출 확대를 주도함(그림 21 참고).

- HS 85류는 삼성전자 베트남 법인에서 생산하는 무선통신기기가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21. 베트남과 ASEAN 주요국의 3대 수출품목의 수출비중 추이

(단위: %)



주: 1) 상위 3대 품목(HS 2 digit)은 2016년 기준,
 2) HS 27류: 광물성 연료 및 에너지, 62류: 의류(편물제 이외), 64류: 신발, 84류: 기계, 85류: 전자기기, 87류: 수송기계.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는 2000년대 들어 최대 수출품목이 성숙단계에 돌입해 수출비중이 축소되고 있는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등과는 대비되는 특징임.

- 베트남의 새로운 수출품목은 수출 규모와 비중이 급속하게 커지거나 증가하는 데 비해 ASEAN 최대 수출국인 싱가포르와 태국 등의 최대 수출품목들은 규모의 확대속도가 낮고 비중은 줄어들고 있음.

라. 동아시아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편입 확대 및 지경학적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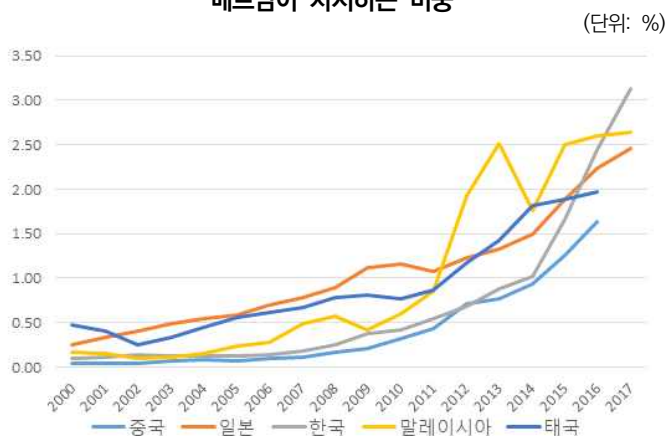
■ 베트남은 FDI 유입과 제조업 육성을 배경으로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동아시아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GPN: Global Production Network)에 참여하였고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 편입속도가 빨라진 것이 수출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그림 22]와 [그림 23]은 세계적인 무역대국이자 GPN을 주도하고 있는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본 것임.

- 동아시아 주요국과의 중간재 및 자본재 교역에서 베트남의 비중이 특히 201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010년대 이후 세계적인 전자기기 및 섬유·의류 기업들과 협력업체들의 베트남 진출과 관련한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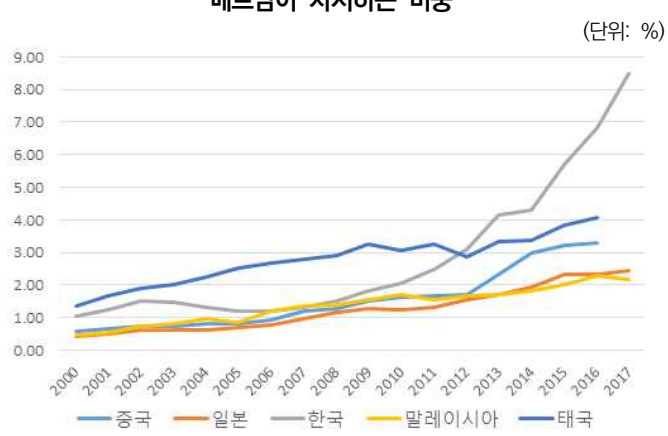
- 특히 동아시아 주요국 중간재 및 자본재 수출에서의 베트남 비중이 수입에서의 비중보다 증가속도가 빠르고 한국과의 교역에서 베트남 비중의 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한국의 전자그룹 및 관련 협력사와 TPP를 겨냥한 섬유 의류기업들의 진출 러시와 관련이 있어 보임.

그림 22.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입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3. 동아시아 주요국의 중간재와 자본재 수출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UN comtrade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이 활발한 FDI 유치를 통해 동아시아의 생산네트워크에 빠르게 편입하고 수출을 급격하게 확대할 수 있는 또 다른 배경으로 동아시아에 위치한다는 지리적 이점, 특히 세계의 공장이자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지경학적(Geo-economic) 이점을 들 수 있음.

- Economist(2016)는 베트남 경제의 최대 메리트로 제조업 심장부(heartland)인 중국 남부와 육지 및 바다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있음.
- 무엇보다 베트남은 중국에서 인건비 급상승을 포함한 China Risk가 확대되자 인건비가 저렴한 생산거점을 찾는 기업에 가장 유망한 대체투자지로 떠올랐으며, 특히 중국의 잘 구축된 서플라이체인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 위치라는 장점을 보유함.

4. 전망 및 시사점

가. 베트남 경제 및 수출 전망

■ 2017년 6.8% 성장으로 2010년대 최고성장률을 시현한 베트남 경제는 풍부한 성장잠재력을 배경으로 향후 상당 기간 기대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베트남은 한국, 홍콩, 싱가포르 등을 잇는 아시아의 차세대 호랑이(Asia's Next Tiger)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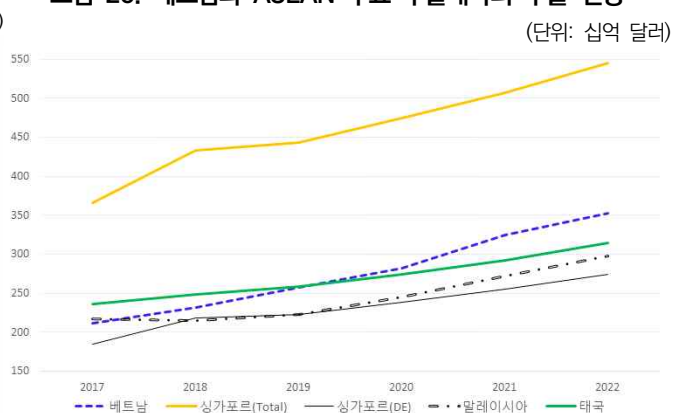
- IHS Markit을 비롯한 많은 경제전문기관들은 베트남 경제가 2018년 이후 5년간 연평균 6.5%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함(그림 24 참고).
- 특히 베트남 경제는 높은 제조업 투자 메리트를 배경으로 한 FDI 유입 지속과 수출 호조를 바탕으로 당분간 연평균 7%대의 높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018년 1/4분기 GDP 성장률이 7.4%로 최근 1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뒷받침함.
 - 전통적으로 베트남의 경제성장률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베트남의 2018년 GDP 성장률은 정부 목표치 6.7%를 뛰어넘는 7% 중반 이상이 될 수도 있음.
 - 실제 ADB는 2018년 베트남의 GDP 성장률을 7.1%로 전망하고 있음.¹¹⁾
- Economist는 베트남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연평균 7% 성장한다면 중국이나 아시아 호랑이(한국과 대만 등)와 유사한 성장궤적을 보일 수 있으나 연평균 4%대로 성장률이 낮아진다면 태국이나 브라질과 같이 중소득국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고 전망함.¹²⁾

그림 24. 베트남의 GDP 및 수출 전망



자료: IHS Marki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25. 베트남과 ASEAN 주요 수출대국의 수출 전망



주: 2017년은 IMF DOTS 데이터(실적치), 싱가포르의 국내수출(DE)은 최근 5년 평균 국내수출률 적용.

자료: IHS Marki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베트남 수출 역시 당분간 FDI 주도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베트남은 조만간 ASEAN 2위 수출대국이 자 실질적인 최대 수출국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통계청(GSO)에 따르면, 2018년 들어 첫 4개월의 수출증가율이 전년동기대비 19.0%를 기록했으며,¹³⁾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면 2018년 베트남의 수출증가율은 2000년대 들어 2017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 17.1%를 넘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는 베트남 정부의 2018년 수출증가율 목표치 8~10%와 IHS Markit의 예상치 8.2%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임.
- IHS Markit은 베트남이 2018년 내 말레이시아, 2020년에는 태국을 추월해 ASEAN내 2위 수출대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나,¹⁴⁾ 그 시기는 앞당겨질 가능성이 큼.

11) Asian Development Bank(2018), p. 271.

12) The Economist(검색일: 2018. 5. 28).

13) 베트남 통계청(검색일: 2018. 5. 28).

- 2019년부터 홍콩과의 FTA가 발효되고 뒤이어 EU와의 FTA 및 CPTPP가 발효된다면 베트남의 대외수출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협상 중인 RCEP이 체결된다면 추가적인 확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임.
- 베트남은 2015년 12월 체결한 EU와의 FTA를 2018년 내 발효시킨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2018년 3월 출범한 CPTPP도 2019년 발효될 것으로 보임.
- 특히 아태지역 11개 국가가 참여한 CPTPP가 발효되면 베트남은 회원국 중 GDP 성장이나 수출 증가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음.¹⁵⁾
- 다만 베트남의 수출 확대는 트럼프 행정부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의 보호무역주의 대두나 글로벌 통상환경 약화의 영향을 다소 받을 수도 있으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베트남 기업 역시 추가적인 수출 확대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나. 시사점

- 베트남이 한국의 최대 경제협력파트너 중 하나로 부상한 상황에서 베트남의 경제 고성장 지속과 수출 고도화는 한베트남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수교 이후 양국간 경제교류는 급속도로 확대되어 2017년 현재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상대국이자 3대 수출시장, 5대 해외투자지, 최대 개발협력대상국, 동남아 최대 한국관광객 입국 국가로 성장함.
- 베트남이 ASEAN 최대의 수출대국 중 하나로 부상하였다는 것은 ASEAN 수출, 더 나아가 ASEAN 무역의 견인차가 선발가입국에서 후발가입국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함.
- 무엇보다 베트남은 2017년 11월 발표한 신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이고 2018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양국 간 협력확대를 위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필요조치를 마련한바, 한국은 조속히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베트남 국빈방문을 통해 「한-베트남 미래지향 공동선언」을 발표함과 동시에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2020년까지 교역 1,000억 달러 달성 액션플랜 양해각서(MOU)’, ‘소재·부품 산업 협력 MOU’, ‘교통 및 인프라 협력 MOU’, ‘건설 및 도시개발 협력 MOU’, ‘4차 산업혁명 대응협력 MOU’, ‘고용 허가제 MOU’에 서명함.¹⁶⁾
- 양국은 정부간 협력을 증진하고 민간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섬유신발, 전력, 에너지안전, 무역구제 등 5개 분야에서 MOU를 체결하였고 양국 기관, 기업, 협회 등은 자동차, 기계, 소재부품, 인력 양성, 전력, 신재생 등 분야 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13건의 MOU도 체결함.

14) IHS Markit(검색일: 2018. 5. 26).

15) Petri *et al.*(2017), pp. 14-15.

16) 정재원(2018. 4. 4), 온라인 자료(검색일: 2018. 5. 29).

- 우선 신남방정책의 4대 중점협력분야인 교통, 수자원관리, 기후변화대응, 스마트시티 등을 중심으로 세부 협력방안과 후속조치사업을 서두를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베트남의 GPN 편입 가속화와 한국과의 관계에서 지속되고 있는 무역불균형 축소를 위해 베트남의 산업구조 및 수출 고도화를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대베트남 무역수지 흑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양국간 최대 경제현안이 됨(2005년 27억 달러 → 2010년 63억 달러 → 2015년 180억 달러 → 2017년 316억 달러).
- 최근 한국의 해외투자과 수출입에서 베트남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베트남에 진출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차 악화되는 측면도 있음을 고려해 해외투자진출 후 사업재배치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노력도 필요함.
- 최근 베트남에서도 인건비가 급상승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한계기업이 나타나고 철수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어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정책과 빠른 속도의 동아시아 GPN 편입을 적극 활용하는 전략도 필요함.

-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정책은 베트남의 제조업 투자 메리트를 높이는 것과 함께 한국에는 유라시아경제동맹 (EEU)과 CPTPP 등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반면 메가 FTA(Vietnam-EU FTA와 CPTPP)의 발효는 베트남 시장은 물론 우리의 수출시장인 EU와 CPTPP 지역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바, 적극적인 대응전략 수립이 요구됨. **KIEP**

참고문헌

[영문자료]

- ASEAN Secretariat and Australian Aid. 2017. *A Historic Milestone for FDI and MNEs in ASEAN*.
- Asian Development Bank. 2018. *Asian Development Outlook 2018: How Technology Affects Jobs*.
- Balassa, Bela. 1965. "Trade Liberalisation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The Manchester School*, Vol. 33, No. 2, pp. 99-123.
- Gaulier, Guillaume, Françoise Lemoine, and Deniz Unal-Kesenci. 2004. "China's integration in Asian production networks and its implications." RIETI. (June 17)
- Ministry of Trade and Industry(Republic of Singapore). 2018. *Economic Survey of Singapore 2017*.
- Ohno Kenichi. 2010. "Avoiding the Middle-Income Trap: Renovating Industrial Policy Formulation in Vietnam." Paper presented at the 2010 Vietnam Development Forum. (February 26)
-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Shujiro Urata, and Fan Zhai. 2017. "Going It Alone in the Asia-Pacific: Regional Trade Agreements Without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 17-10.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일문자료]

- 日本貿易振興機構. 2017. 『ジェトロ世界貿易投資報告 2017年版』.

[온라인 자료]

-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http://fia.mpi.gov.vn>(검색일: 2018. 5. 22).
- 베트남 통계청. <http://www.gso.gov.vn>(검색일: 2018. 5. 22, 5. 28).
- 정재완. 2018. 「문 대통령 베트남 방문, 양국 새 경제협력 물꼬 텃다」. KOREA.KR 정책브리핑. (4월 4일).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9459>(검색일: 2018. 5. 29).
- IHS Markit(검색일: 2018. 5. 26).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DOTS). <http://data.imf.org/?sk=9D6028D4-F14A-464C-A2F2-59B2CD424B85>(검색일: 2018. 4. 18, 5. 25).
- The Economist. 2016. "Good afternoon, Vietnam-Asia's next tiger." (August 6). <https://www.economist.com/finance-and-economics/2016/08/06/good-afternoon-vietnam>(검색일: 2018. 5. 28).
- UN comtrade. <https://comtrade.un.org>(검색일: 2018. 4. 24).
- UNCTAD Manufactured goods by degree of manufacturing groups(SITC Rev. 3).
http://unctadstat.unctad.org/EN/Classifications/DimSicRev3Products_Tdr_Hierarchy.pdf(검색일: 2018. 4. 16).
-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WDI). <https://datacatalog.worldbank.org/dataset/world-development-indicators>(검색일: 2018. 4. 24).

부표 1. HS 코드별 23개 품목 분류기준

23개 품목 기준	명칭	부(Section)	류(Chapter, HS 2 digit)
1	살아있는 동물과 그 생산물	1	1 2 3 4 5
2	식물성 생산물	2	6 7 8 9 10 11 12 13 14
3	동·식물성 유지	3	15
4	조제 식음료	4	16 17 18 19 20 21 22 23 24
5	광물성 생산물	5	25 26 27
6	화학제품	6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7	플라스틱·고무	7	39 40
8	가죽제품	8	41 42 43
9	목재제품	9	44 45 46
10	종이·펄프	10	47 48 49
11	섬유와 그 제품	11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12	신발·모자 등	12	64 65 66 67
13	돌·도자·유리	13	68 69 70
14	귀금속	14	71
15	비(卑)금속과 그 제품	15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기계류	16	84
85	전자기기	16	85
17	운송기기	17	86 87 88 89
18	광학·정밀·의료기기	18	90 91 92
19	무기	19	93
20	잡품	20	94 95 96
21	예술품 등	21	97
99	그 외	99	99

자료: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부표 2. 기술수준별 상품 분류 기준

분류	품목명(SITC Rev. 3 기준)
비연료 1차 상품	식품 및 산동물(0), 음료 및 담배(1), 비식용 원재료-연료제외(2), 동·식물성 유지 및 왁스(5)
연료 1차 상품	광물성 연료·윤활유 및 관련 물질(3)
노동·자원집약 제조업	가죽제품 및 손질모피(61), 코크 및 나무제품(63), 종이·판지 및 펄프(64), 섬유사·직물·직물제품(65), 달리 명시되지 않은 비금속광물(66), 가구 및 부분품(82), 여행용·핸드백 및 유사용기(83), 의복제품 및 의복부속품(84), 신발(85)
저위기술집약 제조업	철 및 강(67), 기타 금속제품(69), 모터사이클과 자전거(785), 트레일러류(786), 철도차량 및 관련장비(791), 선박·보트 및 부유구조물(793), 기타 사무 및 문구용품(895), 기타 잡제품(899)
중위기술집약 제조업	전기기계장치와 기기(77, 단 776 제외), 기타 고무제품(62), 원동기기 및 설비(71), 특수산업용 기계(72), 금속공작용 기계(73), 산업용 일반기계 및 장비(74), 승용차 등(781), 화물차 및 특수목적차량(782), 기타 도로용 차량(783), 722·781~783의 부분품·부속품(784), 조립식건축물·기타 명시되지 않은 위생 연관 및 부착물(81), 기타 플라스틱 제품(893), 유모차·장난감·게임 및 운동용품(894)
고위기술집약 제조업	사무용 기계 및 자동자료 처리장치(75), 통신 및 녹음기기(76), 음극관(776), 화학물 및 관련제품(5, 단 기타 폐기물·쓰레기(599) 제외), 항공기 및 관련장비 우주선(792), 기타 전문·과학·통계기구 및 장치(87), 기타 사진장치 및 광학용품 휴대시계 및 큰시계(88), 무기 및 실탄(891), 인쇄물(892), 예술품·수집물 및 골동품(896), 약제사리·보석 및 금·은세공품(897), 악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레코드·테이프(898)
그 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상품 및 취급물(9)

자료: UNCTAD STAT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부표 3. 생산 공정별 분류 기준

3단계	5단계	BEC code	품명
원료		111	산업용 식·음료품
		21	산업용 원자재
		31	연료 및 윤활유
중간재	반제품	121	가공된 산업용 식·음료품
		22	가공된 산업용 원자재
		321	자동차 차체
		322	가공된 연료 및 윤활유
	부품 및 부분품	42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의 부품 및 부분품
		53	운송장비의 부품 및 부분품
최종재	자본재	41	운송장비를 제외한 자본재
		521	산업용 운송장비
	소비재	112	가정용 식·음료 제품
		122	가정용 식·음료 반제품
		51	승객용 자동차
		522	기타 비산업용 운송장비
		61	내구성 소비재
		62	반내구성 소비재
61	비내구성 소비재		

자료: Gaulier, Guillaume, Françoise Lemoine, and Deniz Unal-Kesenci(2004)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